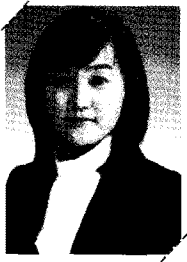


견학을 다녀와서



버릴 때에도 세심한 배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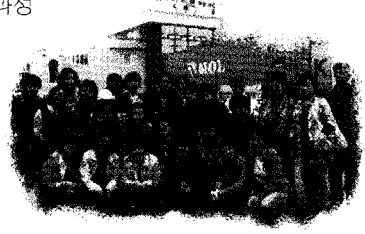
노선아 전국녹색가게연합회간사

지난 10월 15일,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업체를 탐방하기 위해 금천, 부천, 양천, 종로 녹색가게 회원 30여명이 모였다. 부천에서 오전 9시 30분에 집합. 먼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금성산업이란 업체를 방문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하며, 한국발포스틸렌재활용협회에서 나온 장재선 차장님에게 스티로폼 재활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그와 관련된 방송 자료들도 시청하였다. 영상으로 보는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과정은 매우 새롭고 신선했고, 업체를 탐방하기 전 기대감을 갖게하기에 충분했다.

금성산업에 도착. 이곳은 버려진 스티로폼을 수거해 와서 스티로폼의 원료로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했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다함께 둘러보며, 감용기라는 기계를 이용해 스티로폼에 열을 가해 가래떡(잉고트)처럼 만들어 부피를 50분의 1로 줄이고, 이렇게 가래떡처럼 만들어진 상태에 또 열을 가해 딱딱하게 플라스틱처럼 생긴 펠릿이라는 스티로폼 원료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티로폼을 버릴 때 붙어있던 테이프, 종이 등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깨끗한 원료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는 작은 스티로폼을 버릴 때에도 그것을 재활용하는 업체들을 위해, 더 크게는 환경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신일프레임이라는 업체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는 스티로폼의 원료인 펠릿을 이용해 액자 프레임이나, 집안 곳곳의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자재들을 만들고 있었다. 이 자재들은 스티로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고, 자유롭게 모양과 색을 변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스티로폼이 거의 작품에 가까운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이러한 제품들로 장식해 놓은 실내를 둘러보는 일은 매우 즐거웠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버려져 쓸모없던 스티로폼의 대변신. 스티로폼이 몇가지 단순한 작업 과정만으로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소품, 인테리어 자재들로 변할 수 있구나, 앞으로는 종이, 병, 캔 뿐만아니라 스티로폼의 재활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견학을 통해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다. 또한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친환경업체들이 늘어나고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잉고트로 만드는 과정



△펠릿으로 만드는 과정



△재활용된 스티로폼로 장식된 실내



△액자 프레임으로 생산되는 과정